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 FOOD

식食人事事



6.30-7.18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인문극장 2020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2013년부터 빅 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등 매년 다른 주제로 진행해 왔다. 2020년 두산인문극장의 주제는 ‘푸드 FOOD’다. 5월부터 7월까지 사회학과 인문학, 과학 등 각 분야의 강연자를 초청하는 강연 8회 및 공연 3편을 진행한다.

푸드 FOOD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 먹어야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의미를 부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먹어 왔다. 인류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먹었는지 살펴보면 어떻게 지금의 인류에 이르렀는지 역사를 알 수 있다. 음식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아울러 인간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

오늘날 음식문화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거대한 산업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매우 커졌다. 이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개인을 표현하는 방법에 가까워졌다고 할 만큼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없었거나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윤리적, 사회적 문제까지 함께 다뤄지기도 한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은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두산인문극장 2020은 ‘푸드 FOOD’를 이야기하며 먹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살펴보고 먹는다는 것이 지닌 의미들을 되짚어본다.

공연

Space111

[연극] 1인용 식탁 5.6-5.23

원작	윤고는 「1인용 식탁」, 『1인용 식탁』(문학과지성사, 2010)
각색	이오진
연출	이기쁨
출연	김시영 윤성원 이새롬 류혜린 이화정 허영손 김연우

[연극] 궁극의 맛 6.2-6.20

원작	츠치야마 시게루 土山しげる 『고쿠도메시 極道めし』(후타바사 간행 双葉社刊)
각색	황정은 진주 최보영
연출	신유청
드라마터그	윤성호
출연	강애심 이수미 이주영 이봉련 김신혜 신윤지 송광일

[연극] 식사食事 6.30-7.18

작	안데스 윤희솔 이라영 조문기
연출	윤희솔
출연	김원태 안데스 윤희솔 이라영 조문기

강연

두산아트센터 유튜브 

요리한다, 고로 인간이다 6.1 이옥정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음식의 정신심리학적 의미 7.6 김율리 인제대학교 섭식장애정신건강연구소장
다윈과의 만찬 6.8 전중환 진화심리학자, 경희대학교 교수	오늘의 식탁 7.13 정재훈 약사, 푸드라이터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 6.22 이도현 농업회사법인 성우 대표	농업이라는 산업, 농산물이라는 상품 7.20 김태호 과학기술학자, 전북대학교 교수
채식을 해야 하는 윤리적인 이유 6.29 김성한 진화윤리학자,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식품의 세계체제와 한국음식의 미래 7.27 주영하 음식인문학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시놉시스

미각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지만, 식사(食事)는 공적인 영역에서 적당한 예의와 규칙을 요구하는 경제적, 정치적 활동이다. 다양한 이유들이 뒤섞여 발생하는 '식사'라는 사건을 통해 음식과 먹는 행위 안에 작동하는 인간의 '욕망'을 살펴본다.

〈식사(食事)〉는 “나’ 혹은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식사’라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공연이다. 공연은 안데스, 윤한솔, 이라영, 조문기 네 명의 작가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넷이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개별 프로젝트에서는 작가 본인의 개별적인 입맛과 취향, 정치·경제적인 생각들을, 공동 프로젝트에서는 먹는 행위에 대해 공적인 영역에서 함께 들여다본다.



시각예술

〈지질학적 베이커리〉 〈프롬나드런〉 〈궁극의 거래〉 〈Flags〉
〈유리거울 - 나의 위치와 운동량으로 (((뽕)))하는 순간 기율기〉
〈미행과 도청〉 〈발밑에 미래〉

의상디자인

〈목적지수〉 〈녹색광선〉 〈날개, 둔다〉

작·출연

안데스

“함께 먹는 것이 위험한 시대. 역설적으로 가가호호 요리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쉽게 대동되었던 음식을 스스로 만들고 먹는 행위를 통해 음식이 내 앞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하며, 익숙한 것을 새롭게 감각해 본다.”



연극

〈동시대인〉 〈노동풍경1: 실업〉 〈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

〈강철로 된 무지개〉 〈두뇌수술〉 〈호신술〉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공육진의 병신춤 편〉 외

수상

2016 제18회 김상열 연극상

2011 제2회 두산연강예술상

작·연출·출연

윤한솔

“맛이라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다. 하지만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적당한 예의와 규칙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이 절충은 어떤 것들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어렵듯하게 음식과 먹는 행위 안에 작동하는 ‘욕망’이 보인다. 이는 일차적으로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는 사회적 욕망들을 이야기한다. 궁금하다. 이것들이 어떻게 뒤섞여 한 끼의 식사라는 사건이 발생하는지.”



도서

〈타락한 저항〉〈정치적인 식탁〉〈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외

작·출연

이라영

“점점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에서 ‘함께-먹기’에 대한 화두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먹는 문제’는 맛에 대한 감각부터 생명에 대한 윤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환기시킨다. 가장 일상적인 문제에서 가장 정치적인 사유를 끌어낼 수 있는 영역이다. 나의 감각적 쾌락과 영양을 위해 때로 폭력에 눈을 감는, 어쩌면 가장 모순된 세계다. 나와 의 싸움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장.”



현대미술
〈와해의 계절〉 〈와해의 기원〉 〈방관하는 일상〉 외

음반
〈주파수를 나에게〉 〈고질적신파〉 〈석연치않은결말〉 외

작·출연

조문기

“2020년쯤에는 당연히 캡슐로 대신할 줄 알았던 한 끼의 식사. 그것이 한상 차려지기까지의 험난한 발자국과 사회적 의미에 나는 상념에 빠지기도 했지만 곧 허기가 찾아왔다.”



연습 진행 기록과 생각들

박현지

조연출

1월: 아이디어

올해 초 이 작업의 조연출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작년부터 공연 준비를 위해 연출님과 피디님 사이에 오간 공연 아이디어, 회의 기록을 지난 1월 20일 메일로 전달받았다. 공연 제목이 식사(食事)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혼자 예상했던 것들과는 다른 아이디어들이 메일에 적혀있었다. 노포, 맛집, 쿡방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2월: 식사(食事)

나는 한문 교육을 중요시하는 가정과 학교에서 자라 한자가 친숙하다. 하지만 몇 년 전, 한문을 가르치지 않는 중고등학교도 있어 ‘학교’의 한자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사람을 만나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공연 제목을 보고 ‘신문에도 한자가 병기되지 않는 2020년에 한자 병기 공연 제목이라니’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회의 초반에 공연 제목에 굳이 한자 병기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연출님은 먹는 행위, 먹는다는 사건에 대해 다를 것이라 했다.

2월~4월: 찾아가 먹어보는 리서치

을지면옥, 을지다방, 오구반점, 세운상가, 노가리골목, 몽크스부처, 배상면주가 산사원 등은 노포, 지역, 채식, 술 등을 주제로 같이 가서 먹어보고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로 방문한 곳들이다. 역시 사진과 글로 보는

것보다는 먹는 행위를 통해 장소나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을 느끼게 했다.

읽고 보는 리서치

코로나19로 취소나 연기되는 공연들이 많아졌다. 3월 5일, 식사 팀도 셋업과 공연 일정이 2주씩 미루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난 그때만 해도 우리가 공연할 때쯤엔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다. 우리는 일단 식사에 연관된 책들을 선정해 목록을 만들어 함께 읽고 영화,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시리즈를 추가했다.

만들어 보는 리서치

안데스 작가님은 두부, 윤한솔 연출님은 한식 조리 자격증 취득, 이라영 작가님은 비건 베이킹, 조문기 작가님은 제면을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사진, 영상, 생각들을 공유했다. 4월 29일, 키친 스튜디오를 빌려 다 같이 처음으로 요리를 했다. 스크린으로 접해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작가님들의 과정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보니 다른 감정을 체험했다.

6월: 다 같이 모여 요리 연습

6월 8일, 요리를 직접 해야 하는 공연이라 연습실에 조리 시설이 구비되기 시작했다. 초대 손님들이 정해지고 사전 미팅을 진행했다. 주제가 식사라 자신이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거의 모든 초대 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여, 후반에 진행한 사전 미팅들에서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웃음이 터져버렸다. 식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초대 손님들에게도 던졌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목도 식사인 만큼 처음 정리되었어야 하는 답이 아닌가 하지만 이 작업을 하기로 하면서부터 다들 안고 있던 질문이었다. 한 끼 식사에 돈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땐 다들 흥분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식사에 대해 길고 긴 회의와 연습 과정을 거쳤다. 처음 각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정의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식사라는 명료해 보였던 개념 앞에 우리는 각기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에게 식사란 무엇인가?



근육의 맛

안데스

작가

식사를 하면서 하게 되는 이야기는 회의를 하면서 하는 대화와는 다르다. 안부의 인사, 시시콜콜한 이야기, 주변의 소식 등을 전하며 개인적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첫 만남이 어색했던 우리 <식사(食事)>팀은 리서치 기간 동안 노포, 비건 식당 등을 찾아다니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러나 먹은 기억보다는 읽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만난 기억이 더 많다.

자신을 위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로 했다. 사전 미팅에서 초대할 사람들을 미리 만나보니 그들은 연대를 통해 누군가를 지키거나 혹은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즉,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기심, 무관심, 무지를 확인했고 막연하게나마 어떤 느슨한 연대를 갈망하게 되었다. 리서치는 먹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연대하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듯했다. 인간 대 인간의 영역을 넘어 자연과 인류가 어떻게 다시 관계 맺기를 해야 할지 묻는다.

공연에서 내가 직접 만들고 대접할 음식은 두부다. 작년 하반기부터 고기를 완전히 안 먹기로 했다. 동물권을 위한 윤리적 선택이었다기 보다는 산업형 육고기의 유해성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접하고, 오직 내 몸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으로 채식을 시작했다. 고기 대신 다채로운 단백질 섭취 환경을 만들어 보기 위해 두부 만들기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채식도 두부도 내 몸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었지만, 두부를 현대의 음식으로 게스트와 관객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직접 콩을 불리고, 갈고, 끓이고, 거르고, 뭉쳐서 두부를 만들다 보면 두부 만들기를 위한 근육감각이 생긴다. 근육이 두부를 만드는 것인지, 두부가 근육을 만드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래서인지 이렇게 만든 두부에서는 단단하고 탱글탱글한 근육의 맛이 난다. 콩과 내 팔근육의 아름다운 협업의 맛이다. 자연과 1:1 관계 맺기는 이렇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겠다. 서로 매만지고 어우러지면서 서로를 함께 바꿔 나간다.

두부 만들기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주로 사용되는 천일염 대신 핑크 솔트로 간수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두부가 응고되지 않았다. 결국 천일염을 사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두부를 만들었다. 참고로 2018년, 시중 유통 중인 천일염 6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한다. 찜찜하지만 이렇게 백태로 두부 만들기를 성공한 뒤 서리태와 팔으로도 두부를 만들어 보았다. 서리태는 백태보다는 간수에 반응하는 응고력이 약했지만 두부를 만들 수는 있었고, 팔은 단백질보다는 지방과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응고에 실패했다. 결국 다채로운 두부는 커녕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한 백태 두부 1종을 겨우 만들 수 있었다. 이제 가정용 손두부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디폴트 재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직접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환경오염에 의한 먹거리 위기다.

어쨌든 이 두부를 매회 만들 예정이지만 이벤트와 게스트에 따라 17회차 공연이 모두 다를 수도 있는 이 공연은 요일마다 이슈가 다른 라디오 생방송 같다. 매일 하는 요리도 맛이 조금씩 다르듯,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민하게 맛보고 반응하며 매회 유일한 공연을 차린다. 공연이 끝날 때까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배우도 관객도 모르는 ‘c’자의 열린 세계다.



가장 윤리적인 밥이 가장 맛있다

이라영

작가

“N번방에 괜히 채식주의자는 없을 거 같아.”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연출과 공동창작자들은 수많은 말을 나눴다. 식재료에 대해, 요리에 대해, 먹는 활동에 대해, 유통 과정에 대해, 먹기와 관련한 각자의 기억에 대해, 외식 산업에 대해 미식에서 정치적 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화두를 오갔으나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을 꼽으라면 윤한솔 연출의 ‘농담’이다.

N번방 사건이 뉴스를 휩쓸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비건 식당에서 채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불쑥 연출이 ‘N번방에는 채식주의자가 없을 거야’라고 말해서 웃음이 터졌다. 채식주의자는 폭력에 더 예민할 테니 확률적으로 성폭력에 가담하는 사람도 적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채식주의자들 중에는 동물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동물의 고통에 민감한 이들은 타인의 고통에도 민감할 수 있다. 반대로 연쇄 강간, 살인범 중에 동물 학대 전력을 가진 이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이 ‘우스갯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N번방의 성착취물 유포자 중에는 승려가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나는 차마 채식주의자가 반드시 더 비폭력적이라고 단언하진 못하겠다. 다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대면하려고 한다. 인간은 너무도 모순된 존재라서 어떤 폭력에는 극도로 예민하면서 어떤 폭력에는 눈을 감는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식사에는 동물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태와 인권을 착취한 흔적이 있다. 대체로 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아는 것은 불편하기에. 게다가 너무도 일상적이라 자신의 몰인식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은 바로 먹는 세계다.

나는 부족한 채식주의자다. 내 앞에 도착하는 질문들은 언제나 비슷비슷하다. ‘힙한 사람들의 트렌드’처럼 소비되는 비건이 자본주의에 포섭될까 걱정(?) 하거나, 식물도 아프지 않냐는 질문, 혹은 기운이 없을 것이며 ‘몸에는 좋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리라는 편견이다. 산업화된 고기를 먹을 때는 자본주의와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하다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만 이런 질문을 꺼내 놓는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곧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구호 앞에서만 모두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외치며 인권에 분탕질을 벌이는 목소리와 같은 맥락이다. 많은 착취가 이처럼 육식 밥상과 매우 흡사한 맥락을 구성한다. 착취는 타자에 대한 철저한 대상화다.

몇 달간 빵을 굽고 파이를 만들었다. 먹는 건 좋아하지만 전혀 만들 줄 몰랐던 먹거리가 빵이다. 단순해 보이는 빵 하나를 만들면서 식재료 하나하나를 배워 간다. 동물성 재료를 넣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맛의 길을 찾아가는 중이다. 평생 먹으며 살아왔음에도 여전히 먹는 공부를 해야 한다. 먹는다는 건 무엇일까. 어떤 이들에게 먹는 문제는 가장 비정치적 영역처럼 느껴지겠으나 먹는

문제는 때로 정치의 최전선이다.

먹거리와 먹는 시간, 먹는 장소는 안전해야 한다. 여기서 ‘안전’은 나를 위한 안전은 물론이요, 먹거리가 되어 내게 오는 ‘그 생명’과 과정에 대한 안전까지 포함한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함께 안전할 수 있을까. 모순처럼 보이겠으나 먹히는 자의 안전까지 생각할 수 있을 때 최고의 윤리적 밥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가장 윤리적 먹거리가 내게는 가장 맛있는 밥이다.







조연출 노트

박현지

조연출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 나에게서는 식이 가장 중요하다. 옷이나 집보다 먹는 행위를 기반으로 우리는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맺어온 관계들,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이 내가 먹은 음식들에 반영되어 쌓인 시간들로 지금의 내 몸이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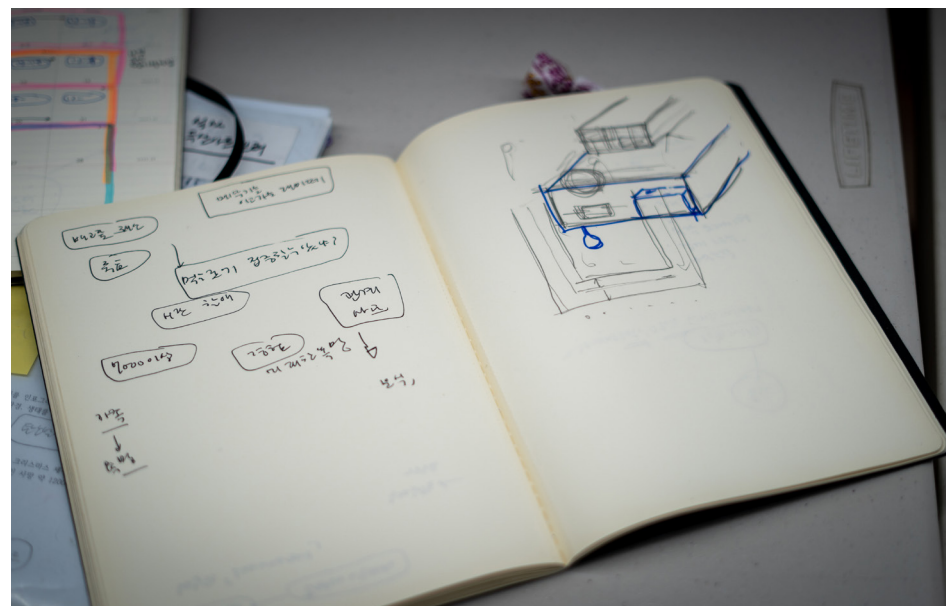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냉면, 빙수, 가을에는 배, 밤, 겨울에는 호빵, 유자차. 음식을 통해 계절을 느낀다. 급식에 맛있는 반찬 나오는 날이면 몰래 나가 먹던 떡볶이, 학교길에 먹던 미니스톱 치킨처럼 음식은 시간을 추억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강원도에 가면 막국수, 전주에 가면 비빔밥, 여수에 가면 계장, 제주도에 가면 고기 국수. 음식은 동네를 경험하고 기억하게 한다. 외국에서 머물다 돌아올 때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같이 고향 바다에 가면 굴을 따 주는 엄마, 연탄불에 맛조개를 구워주던 외할아버지, 스카치 캔디를 몰래 주던 외증조할머니. 누군가를 떠올리면 음식이 함께 기억나기도 한다. 벌꿀 아이스크림, 대왕 카스테라, 허니버터칩, 마카롱, 마라탕, 소떡소떡, 흑당 버블티, 달고나 커피 등 먹을 것만큼 쉽게 지금과 유행을 경험하고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음식이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고 시공간을 공유하고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SNS에는 여행지에서 먹은 것들을 기록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간 맛집 사진들,

직접 만든 요리 사진들이 많다.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도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를 한참 이야기하고 낯선 동네에 가 음식점을 찾을 때 지도 앱보다는 인스타그램에 #OO동맛집 이라고 검색하거나 푸딩코 계정을 확인한다. 사람들은 만나면 식사는 했냐고 묻고, 헤어질 때는 다음에 밥 한번 먹자거나, 다음엔 무엇을 먹으러 가자고 인사한다. 식당에서 혼밥러들이 혼자 음식을 음미하기보다는 휴대폰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브이라이브, 먹방, 쿡방 등을 보고 있는 장면을 쉽게 마주한다. 우리는 사실 먹는 행위를 통해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음식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먹는지, 만든 음식을 나누고 싶어 하는지 등을 통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짐작하기도 한다. 구의역 김군의 가방에 들어 있던 컵라면 사진이 사람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것처럼 음식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나아가 사회를 알 수 있다.

나에게 연극은 같은 주제 아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애써 시간을 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함께 세상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이번 준비 과정 속에 식사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포장 음식, 편의점 음식, 혼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더욱더 부상했다. 연초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자고 미뤘던 친구들과의 식사는 아직도

어렵고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을 앞에 두고 혼자 하는 식사보다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함께 하는 식사가 더욱 소중해졌다. 우리는 매일 다른 음식들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식사라는 사건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오늘 이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하는 '식사'가 어떤 의미를 발생시킬지,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지 궁금하다.



식사(食事)에 관한 몇몇 단상

류준우

사진/영상기록 촬영감독

[식사(食事). 끼니를 때우기 위해
음식을 먹는 일. 혹은 그 음식.]

끼니를 때우는 행위

먹는 것의 간절함이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삶 속에서 간간히 스쳐가는 식사가 결핍된 경험과 그에 대한 감정들은 주로 오래가지 않았다. 그만큼 돌이켜볼 여유가 없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집 앞 편의점마저도 풍요롭다. 언제든 배를 채울 수 있는 먹거리가 널려 있어 그것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은 티끌만큼도 없다. 특정 메뉴를 먹고 싶다는 욕구에 지배당해 비로소 그것들을 입에 넣을 때 느껴지던 행복감이 그리울 때가 있다. 이런 선택적 식욕을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통제하게 되었고 어느덧 익숙해져 자연스러워졌다. 먹고 싶은 것이 있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답하기가 난감하다. 식사란 그저 몸을 움직이기 위해 연료를 채우는 행위에 불과했고 말 그대로 대충 때웠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식사

여전히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아마도 그들과의 교류가 계기가 된 것 같다. 굶주림이 일상화된 오지의 아이들,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 차마 삼키기 어려웠던 그 음식조차 배불리 먹을 만큼 넉넉하지 않았다. 여전히 음식을

남기거나 버려야 할 때면 내 접시에 담긴 음식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얼굴들이 오버랩 된다. 메뉴를 고르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들려서는 안 될 사치로 치부됐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아침, 점심, 저녁을 습관적으로 챙겨 먹는 것도 미련하게 느껴졌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식사를 한다고 하기에는 정해진 식사시간 외에도 수많은 간식을 먹기에. 돌이켜보면 사전적 의미의 식사가 아닌 주관적인 식사의 의미를 정의 내려 본 기억이 없다. 개개인마다 식사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밥을 먹어야만 하거나, 공간 또는 상황이 분리되어 온전히 집중해야 하거나, 이동 중이거나 서서 먹는 것은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한다. 아마도 나는 정말로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을 식사로 느끼는 것 같다.

노포 식당 유감

노포 식당 탐사를 하며 가장 놀란 것은 가격이었다. 대를 이어 운영하는 오래된 가게들인 만큼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낡고 때 묻은 가게에서 느껴지는 싫지 않은 더러움과 가게 주인의 정을 느낄 줄만 알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눈을 의심케 하는 높은 가격과 그에 반해 한참 떨어지는 음식의 질, 서로가 낯선 손님들로 가득한, 오랜 단골들은 더 이상 찾아오기 어려워진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그렇게 노포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에 앞서 서운한 마음까지 들었다.

생명을 소비한다는 것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식사는 점점 구경거리로 자리 잡히고 있다. 얼마나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지 경쟁하듯 전시된다. 물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는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 이상으로 과소비되는 것에는 조심스럽다. 치킨 광고 한 편을 찍을 때 약 180마리의 닭이 소비된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아무리 합리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한들 필요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하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이뤄낸 풍족함을 누릴 권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무차별적인 살생에 국한되지 않았다. 보편적으로 편견이 가득한 시선으로 자리 잡혀 있지만, 내가 이해한 비거니즘의 핵심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그 과정 속에서 행해지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생명존중은 물론 최소한의 양분만을 얻자는 하나의 운동으로 이해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먹는 행위는 양분을 보충하기 위함이고, 그 양분은 다른 생명에게서 온다. 과해서는 안 될 일이고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한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지 않나.

식사의 진정성

“.....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를 들으며 슬픔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정작 이웃집의 인간적인 절망에 대해서는 눈물짓는 능력을 마비 당했을지도 몰라.....”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中

혹시 우리는 TV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막상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끼니

걱정에 하루가 절박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무감각하지는 않은지 되물어본다. 이번 공연을 통해 소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흘러넘쳐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것이고, 마음으로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비로소 진정한 식사가 아닐까. 식사는 문화에 따라 역사가 담기고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다.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멋진 식사를 할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다.

참고자료 리서치 협력

참고자료

단행본

〈고기로 태어나서〉한승태 저, 시대의창, 2018
〈김지은입니다〉김지은 저, 봄알람, 2020
〈나는 숨지 않는다〉박희정, 유해정, 이호연 저, 한겨레출판, 2020
〈노랑의 미로〉이문영 저, 오월의 봄, 2020
〈노포의 장사법〉박찬일 저, 노중훈 사진, 인폴루엔셜, 2018
〈대한민국 치킨展〉정은정 저, 따비, 2014
〈동물 해방〉Peter Singer 저, 김성한 역, 연암서가, 2012
〈두 번째 페미니스트〉서한영교 저, Arte, 2019
〈두부〉박완서 저, 창비, 2002
〈먹히는 자에 대한 예의〉김태권 저, 한겨레출판, 2019
〈비건 세상 만들기〉Tobias Leenaert 저, 전범선 양일수 역, 두루미, 2020
〈사랑할까, 먹을까〉황윤 저, 휴, 2018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강준만 저, 인물과 사상사, 2020
〈식당, 생각을 깨야 이긴다〉이경태 저, 천그루숲, 2019
〈식사에 대한 생각〉Bee Wilson 저, 김하현 역, 어크로스, 2020
〈식탁 위의 세계사〉이영숙 저, 창비, 2012
〈식탁의 길〉Maylis de Kerangal 저, 정해용 역, 열린책들, 2018
〈아흔일곱 번의 봄여름가을겨울〉이옥남 저, 양철북, 2018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은유 저, 돌베개, 2019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Vandana Shiva 저, 우석영 역, 책세상, 2017
〈일리아스〉Homeros 저, 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2015
〈정치적인 식탁〉이라영 저, 동녘, 2019
〈제7대 최악 탐식〉Florent Quellier 저, 박나리 역, 예경, 2011
〈조리 도구의 세계〉이용재 저, 정이용 그림, 반비, 2020
〈중국집〉조영권 저, 이윤희 그림, CABOOKS, 2018
〈헝거〉Roxane Gay 저, 노지양 역, 사이행성, 2018
〈혁명의 맛〉勝見洋一 저, 임정은 역, 교양인, 2015

영상

〈길 위의 셰프들〉David Gelb, 다큐멘터리, 2019
〈인사이트 아시아- 누들로드〉이옥정, 2018-2019
〈잡식 가족의 딜레마〉황윤, 다큐멘터리, 2014

리서치/인터뷰 협력

아는동네 전 편집장
심영규

아는동네 편집장
강필호

풀무질 대표
전범선

푸드 스타일리스트
김민지

리서치/인터뷰 장소 제공

을지면옥
을지다방
오구반점
호랑이 카페
만선호프
꾸밈 휴게공작소
몽크스부처
산사원
비어할레

크레딧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
식사(食事)
2020.6.30 – 7.18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작
안데스 윤희솔 이라영 조문기

연출
윤희솔

출연
김원태 안데스 윤희솔 이라영 조문기

연주
조영재

드라마터그
전성현

조연출/기록
박현지

사진/영상기록 촬영감독
류준우

무대디자인
손정민

영상/음향 감독
윤민철

영상팀
김재성

영상오퍼레이터
김석기

음향오퍼레이터
김성재

조명디자인
노명준

조명크루
김송이 윤지영 이애림 정호진 조철민

무대감독
김민국

주방어시스턴트
김원태

무대제작
무진동사(대표: 김태형)

무대제작지원
손병설 David Cardonal 중앙아크릴

초청손님
김화용 박은선 서한영고 신유청 윤성원 은유 이기쁨
이병재 이오진 이주영 이창근 정아람 한밤 현경 황윤
황정은

두산아트센터

예술감독
강석란

기획
박찬중 정다운 이예나

프로듀서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최혜원 이규원 박수진

티켓매니저
이희정 김지수

기술감독
김관수

조명감독
황동철 왕은지

음향감독
신승욱 류호성

무대감독
강현후 민지홍

하우스매니저
권지은 심진경 방효주

회계
정다미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정진우 최희승 송소연 김성수 이지나



DOOSAN ART SCHOOL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3기

2020.7.4 – 8.3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아티스트와 함께
창작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예술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4 – 7.25 **희곡 워크숍 윤성호** 극작가

7.7 – 7.28 **무대미술 워크숍 진기종** 미술작가

7.13 – 8.3 **연기·연출 워크숍 김수정** 연출가

두산아트센터 doosanartcenter.com

두산아트센터 공모 2020-2021

두산아트랩

두산아트랩은 젊은 예술가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술가들은 두산아트랩을 통해 발전 과정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으며, 이후 작품 개발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2020년 6월 15일 – 7월 15일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작품개발비(팀당 7백만원)
- 발표 장소(Space111 또는 연습실), 부대장비 및 연습실
- 작품 개발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무대기술(무대감독, 사전 협의를 통해 무대/조명/음향 부문 인력 지원)
- 홍보마케팅

발표기간 2021년 1 – 3월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 장르 제한 없음
- * 워크숍/독회/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

인원 7팀 *개인 혹은 단체 지원 가능

DAC Artist

DAC Artist는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접수기간 2021년 1월 4일 – 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공연제작비(최대 1억원)
- 공연장(Space111) 4주, 연습실 6주
- 두산아트센터 기획/제작 전반
- 홍보마케팅

발표기간 2022년 9 – 10월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학교작품 외 2개 작품 이상 창작활동 경험자
(작품은 유/무료 제한 없음)
- * 장르 제한 없음

인원 2명 * 개인만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두산아트센터 apply@doosanartcenter.com

왼쪽회화전

To Counterclockwise

박경률
Park Kyung Ryul

두산갤러리 서울 6.10 - 7.11

DOOSAN
Gallery

SEOUL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길 15
두산아트센터 1층 03129
T. 02-708-5050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 1-212-242-6343(6484)

RESIDENCY NY
548 West 28th Street Suite #231
New York, NY 10001
www.doosangallery.com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두산아트센터 2020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YONKANG
Hall

팬레터 뮤지컬 19.11.7~2.2

작 한재은 연출 김태형

베어 더 뮤지컬 뮤지컬 5.29~8.23

연출/안무 정도영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9.19~11.8

원작 앨런 베넷 연출 김태형

HOPE :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뮤지컬

11.19~21.2.7

극본 강남 연출 오루피나

DOOSAN
Gallery

두산갤러리 서울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1.15~2.15

최윤 개인전 5.6~5.30

박경률 개인전 6.10~7.11

전시기획 공모 선정작 7.22~8.19

김주원 개인전 9.9~10.21

우정수 개인전 11.11~12.16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아트랩 뉴욕 2020 1.16~2.15

우정수 개인전 3.5~3.12

박경률 개인전 9.10~10.17

최윤 개인전 11.5~12.17

DOOSAN
ART
CENTER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3.1~12.31

두산인문극장 2020 : 푸드 FOOD 6.1~7.27

두산아트스쿨 : 미술 10.8~11.5

두산아트스쿨 : 창작 워크샵 7.4~12.5

두산아트센터 투어 2.10 / 8.20 / 10.22

Space111

Doosan Art LAB

앵커 연극 1.30~2.1

작/연출 서정완

양질의 단백질 연극 2.6~2.8

작/연출 김연주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연극 2.13~2.15

작 글과무대(황정은 진주 최보영)

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연극 2.20~2.22

작 추태영 백지영 연출 추태영

두산인문극장 2020 : 푸드 FOOD

1인용 식탁 연극 5.6~5.23

원작 윤고은 각색 이오진 연출 이기쁨

궁극의 맛 연극 6.2~6.20

원작 초치야마 시게루 각색 황정은 진주 최보영

연출 신유형

식사(食事) 연극 6.30~7.18

작/출연 안데스 윤한솔 이라영 조문기 연출 윤한솔

DAC Artist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판소리 9.16~9.25

꿈이 아닌 연극 연극 10.13~10.31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구자혜 신작 연극 11.10~11.28

공동기획

문밖에서 연극 7.25~8.1

작/연출 이양구

마른 대지 연극 8.8~8.23

작 루비 래 슈피겔 연출 윤혜숙

크리스천스 연극 12.5~12.26

작 루카스 네이스 연출 민새롬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서울 02.708.5050 doosangallery.com
두산갤러리 뉴욕 +1.212.242.6343/6484
공연,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